불교 이래서 좋다

이효정

숙명여대 서양학과 3년

생각과 행동의 나침반

나는 불교에 몸과 마음을 적시고 나서 자연을 알았다. 흙에서 싹이 나고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처럼 자연 그 자체가 불교라고 나는 배웠다.

연기법은 나에게 무엇보다 더 큰 가르침이다. 나를 원인으로 다른 생명이 태어나며 내 생명은 다른 생명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열정도 어느 다른 생명체에서 받은 것일지 모른다. 연기법은 인간끼리의 우월감이 절대 아니며 모든 살아 있는 것과 살게 하는 것들이 모두 연기법 안에 있다. 지금 내가 무심코 내쉰 한숨이 멀리 소말리아 아이에게 웃음의 에너지로 전달될 수 있다니 참 신비로운 일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불교를 안고 살아간다고 한다. 내가 안고 사는 불교를 자연에 빗대자면 '흙'이 아닐까. 우리 모두가 태어난 흙, 우리가 돌아가야 할 흙이다. 잡초 하나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고, 흙과 나와 바람이 다르지 않다. 인간에겐 편리를 위해서 산을 깎아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를 해칠 자격이 없다. 지난 여름 대불련 자비보살단에 참여하여 북한산에 가보고서, 자연보다 돈을 생각하는 인간들이 파헤쳐 놓은 소름끼치는 대지의 붉은 살을 보고 인간들의 살기 어린 무지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온 불교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늘 뜨거운 영향을 준다. 그리고 어느새 내 삶의 가치관이 되었고 나의 꿈이 되었다.

나는 내 가치관을 손으로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는 미대생이다. 우리가 바로 자연이고 서로를 해칠 수 없음을, 세상 모든 이가 품어내는 맑은 향기가 이 우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따뜻하게 전하는 화가가 되고 싶다. '나'라는 어린 영혼에게 세상을 껴안을 수 있는 깊이를 안겨준 불교를 너무나 사랑한다.

남북 화해·평화 염원 축제 한마당

대불청, 6월 14~15일 속리산서 불교청년대회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촉구 3보1배

찬불가 합창·풍물공연·평화의 탑 쌓기

◇2001년 열린 제20차 불교청년대회 모습.

청년 불자들이 남북화해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한마당 축제를 연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이하 대불청)는 6월 14, 15일 속리산 잔디광장에서 민족 통일과 화합을 기원하는 제22차 불교청년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대불청 평화문화제'를 함께 개최해,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맞는 청년 불자들의 평화 염원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4일 오후 2시 잔디공원 중앙무대로 1천여 청년 불자들이 모이면서 시작된다. 청년 불자들은 신임 대불청 총재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추대하고 사부대중이 하나되기 위한 불교청년대회를 엄숙히 진행한다.

본 대회에 이어 열리는 대한불청 평화문화제는 1,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대구 지하철 사고 등으로 고통 받는 가족과 영령은 물론 북한산, 금정산, 천성산, 새만금 등에서 자연 파괴로 생명을 잃은 중생들을 애도하기 위해 전국 불자들이 보내온 발원문이 봉독된다.

1부 순서에 앞서 조계사 청년회, 대불청 광주·경기·충북지부 회원들은 찬불가 합창, 풍물, 국악, 살풀이 등 다채로운 공연도 선보이며 2부에서는 청년 불자들의 참회와 결의를 담은 촛불의식과 평화 기원탑 쌓기 등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청년 불자들은 평화기원 삼보일배 정진도 한다. 15일 잔디광장으로 다시 모인 불자들은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정진을 속리산 법주사 앞까지 펼친다. 불교청년대회는 낮 12시 법주사 통일미륵부처님 동상 앞에서 회향식을 갖고 막을 내린다.

대불청은 14일 청소년들을 위한 어린이 전래동화 인형극도 공연한다. 인형극단 친구들은 '바우와 아기도깨비 까우까우'라는 인형극을 50분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불청대회와 관련, 정상옥 회장은 "이 땅 청년 불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전국불청대회를 열어 포교는 물론 민족 통일과 민족화합에도 기여하는 대불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18일 해운대 연꽃문화제에 참석한 청소년들. 가운데는 부불어 회장 지현 스님.

동시 쓰고…그림 그리고…

19회 연꽃문화제 해운대서

18일 제19회 연꽃문화제가 열린 해운대. 18개 사찰에서 참석한 250여명의 어린 불자들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백사장을 동심으로 수놓았다.

만 5세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참여한 이날 연꽃문화제는 산문, 운문, 그림 그리기, 모래 조형의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문화제가 끝난 후 놀이 마당이 펼쳐졌다.

'부처님 오신날' '바다' '하늘'이라는 시제로 열린 이날 백일장은 학년별로 나눠 부산시교육감상, 포교원장상, 부불어회장상을 각각 시상했으며, 부산시교육감상에는 김문현(11) 어린이가, 부산불교연합회장상 산문 부문에는 박종수(8) 어린이 등이 각선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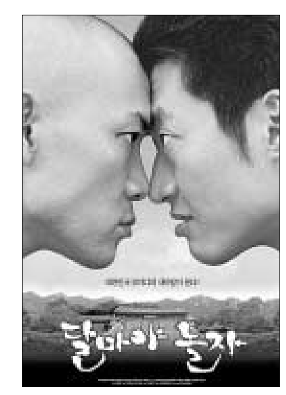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명작 비디오 파일

달마야 놀자

스님과 조폭들이 벌이는 한판 도력(?) 싸움. 박철관 감독의 2001년 작품이다.

조폭들이 폭력사건에 휘말리자 사찰로 피신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당연히 젊은 스님들은 신성한 사찰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조폭들은 오히려 스님들을 내쫓겠다며 소동을 피운다. 여기에서 중재안을 낸 것은 가장 웃어른인 노스님. 스님은 젊은 스님과 조폭들에게 깨진 독을 물로 가득 채우라는 문제를 낸다. 양쪽은 온갖 지혜를 동원해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 결과 조폭들이 승리한다.



이 승리는 노스님이 세상의 '깨진 독'인 폭력배들에게 한없는 사랑의 물을 퍼부었기 때문이란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다. 노스님에게 세상 모든 인간은 불쌍한 중생일 뿐인 것이다. "나는 네 놈들을 내 마음의 연못에 그냥 던졌다"는 스님의 말씀은 모든 사물에 불성이 있다는 뜻인가? 스님의 자비심을 받아들인 조폭들은 새사람으로 태어난다.

불교특강 한국어·영어로 진행

클럽 25, 격주 토요일 연등국제불교회관

"What is the buddhism?"

불교에 관한 기본적인 의문을 영어로 해결하는 '청소년 불교특강'이 마련된다.

'클럽25(회장 문상현)'는 24일부터 2째, 4째 토요일마다 연등국제불교회관(서울 소격동)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 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관심 많은 청소년 불자나 외국인들은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한국 불교를 배울 수 있다.

WFBY(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부회장이면서 국제포교사회 지도위원인 선업 스님이 강의를 진행하며, 교재는 <Buddhism>(Clive errick 저)이다. '불교는 무엇인가', '사성제', '삼법인' 등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다뤄진다. 또한 선업 스님은 강의 중간 마다 참선과 호흡법 등 불교 수행 방법도 지도할 계획이다. 선업 스님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외국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럽25'는 WFBY(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산하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 13차 총회에서 구성이 합의됐고 올 3월 22일 한국지부가 발족했다. (011)9070-2548

강유신 기자

2003 '세계 물의 해'

절수기를 사용합시다

급증하고 있는 물 수요로 인해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도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을 되돌아보면 물 절약이 습관화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1인당 물 사용량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엄청나게 과다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최근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절수기 사용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가정 생활용수의 경우 화장실과 목욕탕의 절수기 설치로 약 50%의 물 절약 효과를 볼 수 있고 대중목욕탕, 여관 등에서도 엄청난 물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말식 꼭지·2단 양변기 등 다양

절수기에는 기존 수도꼭지에 절수형 디스크 및 페킹을 내장한 절수형 수도꼭지, 일반수도꼭지에 포말전을 부착하여 공기와 물방울이 함께 나오게 하는 포말식 수도꼭지, 누름 장치를 누르는 동안만 물이 나오는 샤워헤드, 대소변을 구분하여 2개의 레버로 배출량을 조절하는 2단 양변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집 주변의 철물점이나 타일가게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내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내 한생 성불을 늦추더라도 이 생애는 포교하리라!"

제35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행사개요

1. 일 시 :
■ 기본·심화과정
불기 2547년 6월 7일(토)~ 6월 8일(일) 1박 2일
■ 불교상담
불기 2547년 6월 6일(금)~ 6월 8일(일) 2박 3일
2. 장 소 : 속리산유스타운
3. 예상인원 : 600여명
4. 연수 대상 및 참가비 :

구 분	기본과정	심화과정	불교상담과정
대 상	어린이법회 지도경력 3년 미만	어린이법회 지도자 경력 3년 이상	상담원, 상담에 관심 있는 일반인, 어린이 지도법사
미리 접수	45,000원	45,000원	150,000원
당일 접수	50,000원	50,000원	150,000원
제주도, 울릉도, 군종병	30,000원	30,000원	150,000원
비 고	해외거주자는 무료	해외거주자는 무료	선착순 20명

5. 지급품 : 연수자료집, 기념품
6. 준비물 : 필기구, 간편한복장, 세면도구 등
7. 접수 방법
가. 접수
(1) 홈페이지 - www.dongja.org에서 연수회 참가 신청서 클릭하여 접수
(2) FAX : 신청서 작성 후 FAX로 접수 (051)864-4665
(3) 연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서를 미리 받고자 합니다.
▶본회 사무국 (051)864-4569, 4570
(4)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신청서 작성시 주민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나. 참가비 납부
(1) 접수 후 입금
(2)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연락바랍니다.
(3) 송금계좌 : 우체국 601310-01-002215 [예금주 : 대불어]
다. 접수마감 : 5월 31일 까지

일정표

기본과정 일정표
왜 불교를 믿는가? — 정병조 동국대학교교수
어린이법회운영 (어린이문화의 이해, 지도자의 자세, 교육기법, 운영상의 문제 등) — 적인스님 불교문화원장
여름불교학교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 최미선 아해어린이집원장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절 이야기(1), (2) — 김광호 대한불교교사대학홍보실장, 금화사어린이불교학교장
지도자가 꼭 알아야 할 교리이야기 — 법명스님 향림사주지
찬불가와 율동 — 정유탁 풍경소리

심화과정 일정표
왜 불교를 믿는가? — 정병조 동국대학교교수
사성제를 활용한 상담기법 — 인경스님 보조사상연구소실장, 禪상담연구원장
분임토의(테마가 있는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개발) — 지도: 법명스님 향림사주지
수계식 — 정관스님 본회총재, 영주암회주
선실수 — 정여스님 본회회장, 여여선원장
어린이에게 경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1), (2) — 지현스님 본회부회장, 송광사율원장
찬불가와 율동 — 정유탁 풍경소리

불교상담
<사성제를 활용한 상담기법>
※상담 지도 : 인경스님(철학박사, 禪상담연구원장)
(Ⅰ)접수 및 자기소개 (Ⅱ)苦, 괴로운경험 조사하기
(Ⅲ)集, 원인탐색하기 (Ⅳ)滅, 소멸의 길: 수용과 통찰
(Ⅴ)고집멸도의 이해 (Ⅵ)道, 실천계획수립과 평가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www.dongja.org TEL.(051)864-4569, 4570 FAX.(051)864-4665